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박순진¹, 석말숙^{2*}

¹한국사회복지진흥원 연구원, ²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nfluential Factors for Happiness of Adolescents Who Use Community Child Centers

Soon-Jin Park¹, Mal-Sook Suk^{2*}

¹Researcher, Korea Social Welfare Agency

²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orea Nazareth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지역아동센터패널연구 10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424명을 표본으로 추출과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 및 서비스 도움은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친다. 둘째, 청소년의 우울감과 부정적양육태도는 행복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감이 부모의 부정적양육태도보다 더 강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청소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요인을 부각시키고 부정적인 영향요인은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아동센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대안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행복감,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factors on the happiness of teenagers using local children centers. To this end, 424 people were sampled and hierarchical regression methods were used using data from the 10th year of the Korea Children's Center Panel Stud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elf-esteem and peer relation and service help in adolescents are found to have a static effect on happiness, of which self-esteem has the highest impact. Second, adolescent depression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 have been shown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happiness, and depression has a stronger negative impact than parents' negative parenting attitude.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highlight positive factors of influence and suggest alternatives for applying them to local children centers by developing various programs that can reduce negative factors in order to enhance the happiness of adolescents.

Key Words : Community child centers, Adolescents, Happiness, Positive factors, Negative factors

1. 서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 아동종합실태'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는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나 OECD 회원국 평균 7.6점보다 1점이나 낮아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청소년의 행복도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낮았고,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이 양부모 가정보다 낮게 나타났다[1]. 이와 같은 청소년의 낮은 행복감은 자살생각, 이탈, 학교 부적응, 또래관계의 어려움 등을 내포하는 문제를 경험하게 함[2-4]으로 그 심각성이 크다.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Nanarere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2019.

*Corresponding Author : Mal-Sook Suk(swmalsuk@kornu.ac.kr)

청소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행복감이란 삶의 만족과 삶을 대하는 긍정적 태도 등을 일상생활 가운데 느낄 수 있는 심리 정서적 안정, 내적 평안과 같은 긍정적 작용으로써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정의되는 생활 만족 상태라고 할 수 있다[5,6]. 전연한 바와 같이 행복감이 낮은 청소년은 다양한 문제를 겪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2018 아동종합실태' 결과에 따르면 빈곤 가정 청소년과 비(非) 빈곤가정 청소년 간 행복지수 점수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어 빈곤가정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자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행복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복감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018년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 수는 109,610명이며, 평균적으로 한 센터당 26.5명의 아동·청소년이 이용 중인 것[7]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 안내[8]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신고정원의 80% 이상은 돌봄 취약 대상이어야 하므로 저소득, 한 부모, 조부모, 다문화, 맞벌이 등의 가족구조 특성을 띤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학습지원과 보호 기능을 하며,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방과 후 청소년들에게 돌봄 역할을 하고 있다. 관련 연구[9]에서는 지역아동센터 기능의 접근용이성, 개별성, 지속성, 통합성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지역아동센터의 주요한 기능에 주목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복감을 분석한 연구[9-13]가 최근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청소년은 사회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존재로 부모-자녀관계, 부모양육태도는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14,15]. 부모로부터 수용되고 공감을 받으며 애정을 경험한 자녀는 높은 지능과 자아존중감, 성취욕이 형성됨에 따라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된다[16].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11]에서는 자아개념의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의 평가적 측면으로써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므로 행복감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부모방임과 과잉보호를 동반한 양육태도는 마음이 답답하

거나 근심스러워 활기가 없는 감정 상태인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17,18]. 이러한 우울감은 외부의 다양한 자극으로부터 특정 자극을 선택하여 자신에게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인 청소년의 주의집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19]. 그러므로 각 변인 간에는 상호구조적인 영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여전히 발달단계에 놓여 있는 청소년은 부모의 양육태도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으며,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상호 구조적 영향관계를 파악했다. 반면, 청소년기 특성상 학교나 학원 등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에게 자신의 동기, 흥미, 적성을 마음에 드는 직업 역할에 연계 짓는 것을 의미하는 진로정체감, 학교 성적, 건강상태와 성별, 또래관계는 부모요인 외에 행복감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5,20]이며, 긍정적 또래관계 형성 및 유지하는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안녕과 행복감을 높인다[20].

특히 본 연구 대상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신고정원의 80% 이상이 돌봄 취약계층에 소속된 청소년이다[8]. 이와 관련해 빈곤 가정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선행연구[21]에 따르면 빈곤가정 부모가 자녀 발달을 위해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아동의 인지적 발달장애 현상이 나타나며, 학업성취도가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장시간 노동에 기인한 부모의 양육방식에 의해 자녀의 학습능력과 진로정체감에 위기가 올 수 있고, 심리 정서적 장애가 발생하여 또래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최근 청소년의 부정적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의 내용은 집단 따돌림에 대한 경고[22,23]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집단 따돌림이란 Olweus[24]에 의해서 'bullying'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한 명의 피해 학생이 고의적이면서 지속적으로 둘 이상의 다른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개념화 되었다. 이러한 집단 따돌림의 결과로 피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24], 동시에 우울을 경험하며[25], 궁극적으로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22,23,26]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기의 집단 따돌림의 경험은 우울감을 높게 하고 자아존중감을 낮아지게 해 개인의 주관적 안녕 즉, 행복감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의 행복감에 지역아동센터 이용 및 서비스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기존 선행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었다.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도움을 분석한 선행연구[27]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도움이 서비스 이용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 관련 연구[28]에서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면서 받는 서비스가 청소년의 학교생활, 또래관계, 자기효능감 등에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이용영향평가가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용 대상의 행복감은 상승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도움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감과 행복감에 대한 연구는 긍정요인과 부정요인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먼저, 긍정요인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한 연구[29]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으며, 경북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심리 정서적 안정 및 성숙에 가정환경 즉, 부모요인과 가정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30]됐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또래관계, 학교생활, 자기효능감과 지역아동센터 서비스와 행복감 간의 영향을 살핀 연구[11,27,28]가 시도되었다.

반대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행복감의 부정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로는 농촌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행복에 위협을 주는 요인[30]을 살핀 시도가 있었다. 우선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낮은 경제적 수준은 센터 이용 청소년의 우울 성향과 주의력 부족을 갖게 하였고, 행복감도 낮아지게 했으며, 또래관계에서도 소외되는 현상을 나타내 행복감이 저하되어 있었다. 비록,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은 아니지만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유사한 연구에서는 집단 따돌림을 경험할수록 우울과 공격성을 지니게 되면서 자아존중감이 낮아져[23-27] 학교생활에 불만족[22,23]하여 주관적 안녕 즉, 행복감이 저하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필요성이 지지되며, 곧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위협요인은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된다.

하지만 기존 지역아동센터 또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시도에서는 보호요인[11,27-29]과 위협요인[22-26,12]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시도가 부족했고, 이에 따라 본질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요인을 다원적으로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연령 증본격적으로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며, 부모로부터 심리 정서적 독립을 준비하는 특성을 지니며, 또래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자신과 외부요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들이 내재한 보호요인과 위협요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행복감에 긍정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 둘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행복감에 부정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긍정요인과 부정요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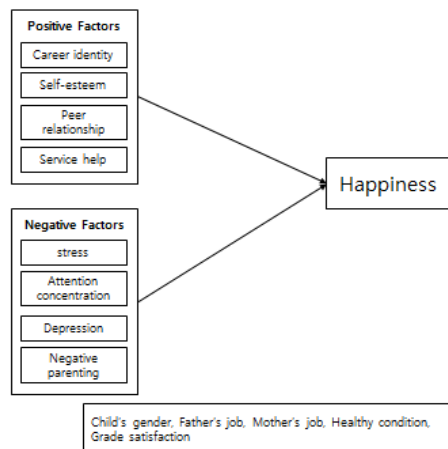


Fig. 1. Proposed Model

2.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로 2014

년 새로 조사가 시작된 '2기 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2기 패널 제4차(2017년) 데이터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며 조사당시 시점에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438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였으며 표본추출방법은 층화 다단계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 중 2004년도에 출생한 424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과 부정으로 분류하여 단계별로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종 조사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행복감

행복감은 Kim et al.[31]이 활용한 척도를 한국지역아동센터 패널에서 재 이용한 단일문항으로 이루어졌다.

2.3.2 진로정체성

긍정요인인 진로정체성에 대한 척도는 Kong[32]이 개발하고 한국지역아동센터 패널에서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진로정체성에 관한 척도는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래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있다', '부모님이 내가 원치 않는 전공학과를 강요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장래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 대체로 방향을 정했다', '대학에 가서 전공하고 싶은 구체적인 분야가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82로 나타났다. 각 질문문항의 응답범주는 리커트 4점 척도로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로 이루어졌다.

2.3.3 자아존중감

긍정요인인 자아존중감에 대한 척도는 Rosenberg[33]이 개발하고 한국지역아동센터 패널에서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에 관한 척도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4,6번 문항은 역코딩하여 측정하였다.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775로 나타났다. 각 질문문항의 응답범주는 리커트 4점 척도

로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로 이루어졌다.

2.3.4 또래관계

긍정요인인 또래관계에 대한 척도는 Armsden & Greenberg[34]가 개발한 애착척도를 한국지역아동센터 패널에서 사용하였다. 또래관계에 관한 척도는 의사소통 3문항, 신뢰 3문항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좋다는 것을 뜻한다.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90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각 질문문항의 응답범주는 리커트 4점 척도로이며, '매우 그렇다' 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4점까지로 이루어졌다.

2.3.5 서비스도움

긍정요인인 서비스도움에 대한 척도는 한국지역아동센터 패널에서 이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서비스도움에 관한 척도는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숙제와 같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국·영·수·과학 등 주요과목을 배우는 것', '놀이나 문화, 취미활동을 하는 것', '센터 선생님과 일상적인 상담이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서비스도움 정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90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각 질문문항의 응답범주는 리커트 5점 척도로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이루어졌다.

2.3.6 스트레스

부정요인인 스트레스에 대한 척도는 한국지역아동센터 패널에서 사용하였다. 스트레스에 관한 척도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구에 대한 열등감(친구보다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33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질문문항의 응답범주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이루어졌다.

2.3.7 주의집중

부정요인인 주의집중에 대한 척도는 Cho & Im[35]이 개발한 것을 한국지역아동센터 패널에서 사용하였다. 주의집중 관한 척도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칭찬을 받거나 벌을 받아도 금방 다시 주의가 산만해진다',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는 편이다', '오랫동안 집중해야 하는 과제는 하고 싶지 않다', '연필이나 지우개 등 학용품을 잘 잃어 버린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의집중을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780로 높게 나타났다. 각 질문문항의 응답범주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이루어졌다.

2.3.8 우울감

부정요인인 우울감에 대한 척도는 Kim et al.[36]이 간이 정신진단검사를 개발한 것을 한국지역아동센터 패널에서 사용하였다. 주의집중 관한 척도는 10개 문항으로 역코딩하였으며, '기운이 별로 없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걱정이 많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울기를 잘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904로 나타났다. 각 질문문항의 응답범주는 리커트 4점 척도로이며, '매우 그렇다' 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4점까지로 이루어졌다.

2.3.9 부정적 양육태도

부정요인인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척도는 Huh[37]이 제작한 것을 한국지역아동센터 패널에서 사용하였다. 부정적양육태도에 관한 척도는 방임 3문항, 학대 4문항 총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임 3문항은 역코딩하였다. 문항은 '다른 일(직장이나 바깥 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보호자)께서는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부모양육태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791로 나타났다. 각 질문문항의 응답범주는 리커트 4점 척도로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로 이루어졌다.

2.4 분석방법

자료 분석 방법은 지역아동센터이용 청소년의 행복감에 관련된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과 상관관계,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빈도분석, 주요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왜도와 첨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지역아동센터이용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긍정, 부정 요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요인과 부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넷째, 결측값은 회귀대체법을 적용하였으며, 이상치를 검증하고 유의수준 $\alpha < 0.05$ 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성별은 '남학생' 215명(50.7%)과 '여학생' 209명(49.3%)을 분포하고 있다. 부의 학력은 '고졸 이하' 202명(69.4%), '대졸 이상' 89명(30.6%)이며, 모의 학력은 '고졸 이하' 213명(72.4%), '대졸 이상' 81명(27.6%)으로 부모 모두 고졸이상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부와 모는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이용 청소년의 건강상태는 '건강하다' 409명(96.5%)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경제수준은 '기타(기초생활수급대상, 차상위, 사각지대)' 206명(48.6%), '보통이다' 187명(44.1%), '잘 산다' 31명(7.3%)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적 만족도는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0명(2.4%),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121명(28.5%), '만족하는 편이다' 227명(53.5%), '매우 만족한다' 66명(15.6%)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n=424)

Classification		N	%
Child's Gender	Male	215	50.7
	Female	209	49.3
Father's Education	Under high school	202	69.4
	Over University	89	30.6
Mother's Education	Under high school	213	72.4
	Over University	81	27.6
Father's Job	Have	317	94.1
	Not Have	20	5.9
Mother's Job	Have	252	74.8
	Not Have	85	25.2
Healthy Condition	Bad	15	3.5
	Good	409	96.5
Economic Level	Poor	206	48.6
	Normal	187	44.1
	Rich	31	7.3
Grade Satisfaction	Very Dissatisfaction	10	2.4
	Dissatisfaction	121	28.5
	Satisfaction	227	53.5
	Very Satisfaction	66	15.6

3.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지역아동센터이용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요인과 부정요인의 변인들 간의 기술통계량 분석한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주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SD)를 분석한 결과, 행복감의 평균값 3.396(표준편차=.586), 진로정체성의 평균값 2.913(표준편차=.607), 자아존중감의 평균값 3.144(표준편차=.525), 또래관계의 평균값 3.216(표준편차=.576), 서비스도움의 평균값 4.130(표준편차=.600)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의 평균값 2.212(표준편차=.807), 주의집중의 평균값 2.237(표준편차=.540), 우울감의 평균값 1.736(표준편차=.576),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의 평균값 1.706(표준편차=.482)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긍정요인과 부정요인, 종속변수인 행복감 변수의 정규성을 검증한 결과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과 10보다 작아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n=424)

Variables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1)	2.00	4.00	3.396	.586	-.368	-.707
2)	1.00	4.00	2.913	.607	.021	-.570
3)	1.17	4.00	3.144	.525	.023	-.482
4)	1.00	4.00	3.216	.576	-.405	.303
5)	1.78	5.00	4.130	.600	-.809	.961
6)	1.00	4.50	2.212	.807	.380	-.466
7)	1.00	3.86	2.237	.540	.060	-.010
8)	1.00	4.00	1.736	.576	.699	.426
9)	1.00	3.50	1.706	.482	.470	-.205

1) Happiness 2) Career Identity 3) Self-Esteem 4) Peer Relationship 5) Service Help 6) Stress 7) Concentration of Attention 8) Depression 9) Negative Parenting

3.3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수 간 상관분석은 Table 3과 같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행복감과 긍정요인 및 부정요인 간의 상관분석을 통하여 다중공선성 문제를 살펴본 결과 기준치인 0.80이상 되는 변수는 없었다.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긍정요인인 진로 정체성은 자아존중감($r=.391, p<.01$), 또래관계($r=.353, p<.01$), 서비스도움($r=.243, p<.01$), 종속변수인 행복감($r=.296, p<.01$)과는 정(+)의 상관성을 보였다.

또한 부정요인인 스트레스 ($r=-.185, p<.01$), 주의집중($r=-.158, p<.01$), 우울감($r=-.233, p<.01$), 부정적 양육태도($r=-.261, p<.01$)와는 부(-)의 상관성을 보였다. 긍정요인인 자아존중감은 또래관계($r=.398, p<.01$), 서비스도움($r=.286, p<.01$), 행복감($r=.521, p<.01$)과는 정(+)의 상관성을 보였고, 부정요인인 스트레스 ($r=-.497, p<.01$), 주의집중($r=-.275, p<.01$), 우울감 ($r=-.558, p<.01$), 부정적양육태도($r=-.436, p<.01$)와는 부(-)의 상관성을 보였다.

긍정요인인 또래관계는 서비스도움($r=.221, p<.01$), 종속변수인 행복감($r=.378, p<.01$)과는 정(+)의 상관성을 보였고, 부정요인인 스트레스 ($r=-.288, p<.01$), 주의집중($r=-.216, p<.01$), 우울감($r=-.328, p<.01$), 부정적양육태도($r=-.305, p<.01$)와는 부(-)의 상관성을 보였다. 긍정요인인 서비스도움은 종속변수인 행복감 ($r=.257, p<.01$)과는 정(+)의 상관성을 보였고, 부정요인인 스트레스 ($r=-.152, p<.01$), 우울감($r=-.217, p<.01$), 부정적양육태도($r=-.250, p<.01$)와는 부(-)의 상관성을 보였다.

부정요인인 스트레스는 주의집중($r=.189, p<.01$), 우

울감($r=.411, p<.01$), 부정적양육태도($r=.301, p<.01$)와는 정(+의 상관성을 보였고, 종속변수인 행복감($r=-.352, p<.01$)과는 부(-)의 상관성을 보였다. 부정요인인 주의집중은 우울감($r=.382, p<.01$), 부정적양육태

도($r=.273, p<.01$)와는 정(+의 상관성을 보였고, 종속변수인 행복감($r=-.236, p<.01$)과는 부(-)의 상관성을 보였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s	coefficient								
	1)	2)	3)	4)	5)	6)	7)	8)	9)
1)	1								
2)	.391**	1							
3)	.353**	.398**	1						
4)	.243**	.286**	.221**	1					
5)	-.185**	-.497**	-.288**	-.152**	1				
6)	-.158**	-.275**	-.216**	-.089	.189**	1			
7)	-.233**	-.558**	-.328**	-.217**	.411**	.382**	1		
8)	-.261**	-.436**	-.305**	-.250**	.301**	.273**	.353**	1	
9)	.296**	.521**	.378**	.257**	-.352**	-.236**	-.497**	-.393**	1

1) Career Identity 2) Self-Esteem 3) Peer Relationship 4) Service Help 5) Stress 6) Concentration of Attention 7) Depression 8) A Negative Parenting Attitude 9) Happiness. ** $p<.01$.

부정요인인 우울감은 부정적양육태도($r=.353, p<.01$)와는 정(+의 상관성을 보였고, 종속변수인 행복감($r=-.497, p<.01$)과는 부(-)의 상관성을 보였다. 부정요인인 부정적양육태도는 종속변수인 행복감($r=-.393, p<.01$)과는 부(-)의 상관성을 보였다.

3.4 위계적 회귀분석 검증결과

3.4.1 긍정적 위계적 회귀분석 검증결과

본 연구는 주요변수인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긍정요인의 영향력과 설명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각 단계에서 투입된 변수들은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를 투입하였으며, 2단계~5단계에서는 행복감에 미치는 긍정요인을 투입하였다.

Table 4에서 살펴보면 통제변수를 투입한 1단계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건강상태($\beta=.135, t=2.321, p<.05$), 전체 성적만족도($\beta=.213, t=3.533, p<.001$) 요인이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전체 성적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1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는 행복감을 10.9% 정도 설명하고 있다.

2단계에서는 통제변수를 통제하고 긍정요인인 진로 정체성($\beta=.227, t=3.976, p<.001$)을 투입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이용 청소년의 진로정체성은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청소년의 진로정체성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2단계에서 진로 정체성은 행복감을 16.0% 정도 설명하고 있다.

3단계에서는 통제변수와 진로정체성 변수를 통제하고 자아존중감($\beta=.414, t=6.994, p<.001$) 변수를 투입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청소년이 자신을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수록 주관적인 행복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단계에서 자아존중감은 행복감을 29.1% 정도 설명하고 있다.

4단계에서는 통제변수를 통제하고 긍정요인인 또래 관계($\beta=.162, t=2.815, p<.01$)를 투입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좋을수록 행복감이 높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4단계에서 또래관계는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31.2% 정도 설명하고 있다.

5단계에서는 통제변수를 통제하고 긍정요인인 서비스도움($\beta=.119, t=2.155, p<.05$)를 투입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서비스도움은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5단계에서 서비스도움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32.4% 정도 설명하고 있다.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Happiness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B(β)	t	B(β)	t	B(β)	t	B(β)	t	B(β)	t
Child's Gender	.135(.117)	1.942	.149(.129)	2.206*	.105(.091)	1.675	.115(.099)	1.851	.117(.101)	1.895
Father's Job	-.140(-.055)	-.951	-.101(-.040)	-.705	-.030(-.012)	-.228	-.021(-.008)	-.162	-.050(-.020)	-.384
Mother's Job	.118(.090)	1.544	.127(.097)	1.708	.092(.070)	1.338	.082(.063)	1.212	.079(.060)	1.176
Healthy Condition	.380(.135)	2.321*	.361(.128)	2.261*	.210(.075)	1.413	.200(.071)	1.365	.135(.048)	.908
Grade Satisfaction	.171(.213)	3.533**	.147(.183)	3.096**	.088(.110)	1.987*	.080(.100)	1.826	.071(.089)	1.623
Career Identity			.224(.227)	3.976***	.076(.078)	1.366	.040(.041)	.711	.023(.023)	.399
Self-Esteem					.470(.414)	6.994***	.415(.366)	6.020***	.394(.348)	5.696***
Peer Relationship							.170(.162)	2.815**	.167(.159)	2.778**
Service Help									.117(.119)	2.155*
R ²	.109		.160		.291		.312		.324	
R ² change	.109		.050		.132		.021		.012	
Adjusted R ²	.092		.141		.273		.291		.301	
F	6.504		15.810		48.912		7.924		4.645	
Durbin Watson	2.024									

*p<.05, **p<.01, ***p<.001, Child's Gender(Male=1, Female=0), Father's Job(Have=1, Not Have=0), Mother's Job(Have=1, Not Have=0)

3.4.2 부정적 위계적 회귀분석 검증결과

본 연구는 주요변수인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부정요인의 영향력과 설명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각 단계에서 투입된 변수들은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를 투입하였으며, 2단계~5 단계에서는 행복감에 미치는 부정요인을 투입하였다.

Table 5에서 살펴보면 통제변수를 투입한 1단계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건강상태($\beta=.135$, $t=2.321$, $p<.05$), 전체 성적만족도($\beta=.213$, $t=3.533$, $p<.001$)요인이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전체 성적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1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는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10.9% 정도 설명하고 있다.

2단계에서는 통제변수를 통제하고 부정요인인 스트레스($\beta=-.221$, $t=-3.679$, $p<.001$)를 투입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행복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낮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또한 1단계에서 행복과 관련이 없었던 성별은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에서 독립변수는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15.3% 정도 설명하고 있다.

3단계에서는 통제변수를 통제하고 부정요인인 주의 집중($\beta=-.201$, $t=-3.202$, $p<.01$)을 투입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주의집중은 행복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청소년의 주의 집중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낮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는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18.5% 정도 설명하고 있다.

4단계에서는 통제변수를 통제하고 부정요인인 우울감($\beta=-.386$, $t=-6.313$, $p<.001$)을 투입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우울감은 행복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청소년의 우울감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낮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4단계에서 우울감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29.2% 정도 설명하고 있다.

5단계에서는 통제변수를 통제하고 부정요인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beta=-.278$, $t=-3.854$, $p<.001$)를 투입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행복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청소년의 부모가 부정적인 양육을 하는 경우 행복감이 낮아진다고 설명된다. 5단계에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33.0% 정도 설명하고 있다.

Table 5.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Happiness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B(β)	t	B(β)	t	B(β)	t	B(β)	t	B(β)	t
Child's Gender	.135(.117)	1.942	.101(.087)	1.475	.114(.099)	1.693	.113(.098)	1.793	.129(.111)	2.098*
Father's Job	-.140(-.055)	-.951	-.098(-.039)	-.678	-.103(-.041)	-.723	-.050(-.020)	-0.375	-.080(-.032)	-0.615
Mother's Job	.118(.090)	1.544	.093(.071)	1.238	.106(.081)	1.444	.126(.096)	1.832	.102(.078)	1.518
Healthy Condition	.380(.135)	2.321*	.343(.122)	2.139*	.262(.093)	1.640	.227(.081)	1.520	.262(.093)	1.799
Grade Satisfaction	.171(.213)	3.533***	.128(.160)	2.639**	.110(.137)	2.280*	.087(.108)	1.918	.092(.115)	2.089*
Stress			-.156(-.221)	-3.679***	-.138(-.196)	-3.288*	-.063(-.089)	-1.525	-.037(-.052)	-0.902
Attention Concentration					-.201(-.185)	-3.202**	-.069(-.063)	-1.103	-.018(-.017)	-0.289
Depression							-.386(-.380)	-6.313***	-.319(-.314)	-5.137***
Negative Parenting									-.278(-.224)	-3.854***
R ²	.109		.153		.185		.292		.330	
R ² change	.109		.043		.032		.108		.038	
Adjusted R ²	.092		.133		.163		.271		.307	
F	6.504		13.537		10.255		39.855		14.856	
Durbin Watson	2.015									

*p<.05, **p<.01, ***p<.001, Child's Gender(Male=1, Female=0), Father's Job(Have=1, Not Have=0), Mother's Job(Have=1, Not Have=0)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으로 긍정요인과 부정요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정체성은 청소년의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beta=.227$, $t=3.976$, $p<.001$)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둘째,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beta=.414$, $t=6.994$, $p<.001$)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셋째, 또래관계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beta=.162$, $t=2.815$, $p<.001$)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넷째, 서비스 도움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beta=.119$, $t=2.155$, $p<.05$)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진로정체성은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진로정체감보다는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 등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진로정체감의 영향이 묻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행복감 증진 관련 방안으로서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적합의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아동센터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형성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에 의해 전체 정원의 80%를 '돌봄 취약 대상'으로 나머지 20%를 일반대상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부분의 이용 청소년이 저소득층 가정이므로 진로교육 및 관련 교육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진로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긍정요인인 진로정체감은 행복감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청소년의 행복감에 진로정체감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5,20]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뒷받침할 수 있었다. 이에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진로교육 예산이 확보되어 융복합적 선진교육기회를 제공한다면 청소년의 행복감 증진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테면, 코딩교육과 AI, 인성교육, 인문학 강좌 등을 포함하여 전인적이며, 융복합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노력의 일환으로써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에게 교육에 있어

서만큼은 기회의 평등을 제공해야 한다. 전연한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 선별 아동의 80%는 돌봄 취약 아동이다. 결국 이는 취약계층 청소년들끼리만 또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다양한 또래를 사귄 수 있도록 국가는 제도권 교육 외에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이 방과 후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긍정요인으로서의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즉, 또래관계를 더 잘 맺으면 맺을수록 행복감이 증진한다는 것인데 관련 선행연구[20,22]와 맥을 같이 하므로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 또래관계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므로 다양한 또래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하는데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경우는 방과 후에 만날 수 있는 또래는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어서 다양한 경험이 박탈되고, 긍정적 자극을 받기에는 한계가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소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또래관계 촉진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곧 청소년의 행복감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서비스 도움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서비스 기회 제공의 확대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3명이다. 센터장, 생활복지사, 아동복지교사[38]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이용 아동 청소년의 20명에서 30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인원이므로 교사의 증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교사의 인원이 적어 연차사용 및 휴가 시에는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여 아동들의 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교사 처우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서비스는 사례관리, 상담, 학습지도, 식사 지원 등이다. 이 외 다양한 예체능, 인문학, AI 콘텐츠 교육 콘텐츠가 비록 간헐적일 지라도 지원이 된다면 센터 이용 청소년의 서비스 만족도가 상승되며, 높은 인적 자원의 제고 효과를 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의 척도가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한계

와 횡단연구라는 시계열적 영향을 살피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다양한 연구방법 활용이 필요하다. FGI, 현장관찰 등 질적연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즉, 다양한 연구방법론적 접근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별과 지역을 나누어 그 영향력을 살펴볼 시도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Kismom. (2019.08.27.). Korea's Child and Youth Happiness Index, Still Ranked at the Bottom of the OECD. <https://kizmom.hankyung.com/news/view.html?id=201908279867o>.
- [2] S. R. Kwak. (2015). Determinants of Suicide Ideation and Happiness on Adolescent. *Journal of the Korean Welfare Panel Academic Contest*, 8, 53-70.
- [3] S. Y. Park & H. G. Lee. (2013). Determinants of Subjective Well-Being among Korea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1(2), 73-84.
- [4] Y. A. Jang, & Y. J. Lee. (2015). A Study of Adolescent's Happiness and Adolescent's Perception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Peer Relationships, Study Stres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13(4), 147-156.
- [5] H. C. Park, S. B. Kim & D. Hong. (2011). The Effects of Family Functions and Social Support on Happiness: Children's Perspective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6(3), 167-193.
- [6] L. D. Louise & P. Z. Nausheen. (2015). Happiness in the United Arab Emirates: Conceptualisations of Happiness among Emirati and other Arab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Happiness and Development*, 2(1), 1-21. DOI : 10.1504/ijhd.2015.067590
- [7] E. T. CHO. (2019). Published as of the end of 2018 Statistical Survey of Local Children Centers nationwide. <http://www.ngonews.kr/112678>.
- [8]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48849
- [9] J. G. Lim, H. S. Park & I. J. Chung. (2015). Functions and Roles of Community Child Center Recognized by Practitione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7(2), 285-310.

- DOI : 10.20970/kasw.2015.67.2.012
- [10] Y. H. Kim & O. R. Kang. (2019). A Study on the Factors of Personal, Family, School, and Community Child Center Affecting the Happiness of Children in Community Child Center.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30(1), 191-204. DOI : 10.20972/kjee.30.1.201903.191
- [11] Y. J. Park & J. S. Lee. (2016). Study on the Relationship Regarding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Happiness with Self Esteem in Community Child Center.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20(1), 31-52.
- [12] S. H. Park. (2012). A Qualitative Study about the Endangerment of Child's Welfare in Rural Areas and the Necessity of Parent Education in Regional Care Centers. *Andragogy Today*, 15(1), 1-30.
- [13] K. A. Shim. (2010). *(A) Study on the Positive Psychological Therapy by the Survey of Subjective Well-Being about Children Community Child Center*. Han-Yang University a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14] E. J. Lee. (2019).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Utilizing Picture Books on the Happiness of Children in Community Child Center*. Dong-Guk University a Graduate School of Culture and Arts.
- [15] S. I. Jeon, J. H. Lee, K. C. Lee & Y. M. Choi. (1996). Differences in the Patterns of Parental Rearing between Depression and Depressive Conduct Disorder in Adolescenc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7(1), 34-43.
- [16] J. S. Hwang, J. Y. Hong & Y. J. Kwak. (2012). *Child's Emotional Intelligence*. Seoul: Book Publishing Knowledge Channel.
- [17] H. N. Lee. (2019). *The effect of parent's neglect and abuse on child depression : The moderating effect of service experience of Community Child Center*. Sogang University a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 [18] S. J. Lee & J. H. Kim. (2019).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Media Addiction in Local Children's Center : Focused on Depression Mediated Effects.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60, 101-120. DOI : 10.35422/cwsk.2019.60.101
- [19] J. Y. Lee & S. Y. Jang. (2019). The Effect of Risk Factors on the Emotional Problems of Children in the Community Child Center.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23(1), 7-36. DOI : 10.22590/ecee.2019.23.1.7
- [20] J. H. Cha & S. I. Choi. (2017). Mediating Effects of Career Ident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ptimism and Happiness of 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8(6), 1045-1058. DOI : 10.22143/hss21.8.6.70
- [21] I. H. Ku. (2003). The Effect of Economic Loss and Income Levels on Adolescents' Educational Attainmen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3, 7-29.
- [22] W. L. Hoglund & B. J. Leadbeater. (2004). The Effect of Family, School, and Classroom Ecologies on Changes i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in First Grade. *Developmental Psychology*, 40(4), 533-544. DOI : 10.1037/0012-1649.40.4.533
- [23] S. A. Erath, K. S. Flanagan & K. L. Bierman. (2008). Early Adolescent School Adjustment: Association with Friendship and Peer Victimization. *Social Development*, 17(4), 853-870. DOI : 10.1111/j.1467-9507.2008.00458.x
- [24] D. Olweus. (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 C.: Hemisphere(Wiley).
- [25] S. Austin & S. Joseph. (1996). Assessment of Bully/ Victim Problems in 8 to 11 Year Old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6(4), 447-456. DOI : 10.1111/j.2044-8279.1996.tb01211.x
- [26] C. J. Lee & K. J. Kwak. (2000). Self-Concept & Social Support According to Bullying Type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3(1), 65-80.
- [27] J. H. Mun & J. S. Kim. (2018). The Effect of School Adaptation and Parents-Child Activity on Children' Happiness of Community Child Center: The Mediating Effect Help of Center.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9(1), 373-386. DOI : 10.22143/hss21.9.1.30
- [28] M. J. Seon & W. M. Jung. (2018). Effect of the Community Child Center Services on Children's Happiness: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3(2), 263-282. DOI : 10.13049/kfwa.2018.23.2.6

- [29] S. D. Han. (2012) A Study on the Influence, Which has Affect on the Happiness, of Self Elasticity and the Social Support Felt by Children.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Cultural Exchange*, 1(2), 111-134.
- [30] Y. M. Song & S. J. Lee. (2016). Practical Implications through the Relation of between Home-Environmental Health and Mental-Social Maturity of the Children Who Use a Community Children Center.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59, 65-97.
DOI : 10.15300/jcw.2016.59.4.65
- [31] K. J. Kim, H. J. Kim, M. H. Lee & O. N. Kim. (2014). *A Study on the Human Rights of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https://www.nypi.re.kr>.
- [32] I. K. Kong. (2008). *Effects of Holland's Career Exploration Program on Career Maturity, Career Efficacy, Career Identity and Career Barriers of Underachievers*.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 [33] M. Rosenberg.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34] G. C. Armsden & M. T. Greenberg.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35] B. H. Cho & K. H. Lim. (200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motional or Behavioral Problems Scal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5(40), 729-746.
- [36] K. I. Kim, J. H. Kim & H. T. Won. (1984). *Korean Manual of Symptom Checklist-90-Revision*, Central Aptitude Publishing Department.
- [37] M. Y. Huh. (1999).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 Department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38] H. L. Lee & Y. Y. Yi. (2018). A Study on Job Recognition of Local Child Care Center Workers by Position, *After School Educate Association*, 15(1), 1-19.

박 순 진(Soon-Jin Park)

[정회원]



- 2012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문학사)
- 2016년 2월 : 한세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학석사)
- 2017년 5월 ~ 현재 : 한국사회복지진흥원 연구원

-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 가족복지, 대학생
- E-Mail : sj5114@hanmail.net

석 말 숙(Mal-Sook Suk)

[정회원]



- 1987년 2월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198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문학석사)
- 1998년 12월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School of Social Welfare (M.S.W)

- 200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장애인, 가족
- E-Mail : swmalsuk@kornu.ac.kr